

# 환율급등에 서학개미 주춤… 국내투자·단기채 등 전략 분기점

환율 변동성 커지며 환전 부담 커져  
전문가들 국내 투자비중 확대 전망  
달러강세 기반 수익 선택 가능성도

#직장인 오 모 씨(38)는 국내 증시에 10년 동안 투자하다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해 작년 2분기(4~6월)부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술주 다섯 개를 선별해 매수하기 시작했다. 12월 현재 미국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의 절반을 넘게 됐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근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오 씨는 “미국 증시가 꾸준히 올라 수익은 좋지만, 환전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당분간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일 생각이다”라고 토로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의 하루 평균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이 전달 보다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일 서울 명동 환전소에 원·달러 환전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시장에서는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세제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들이 점차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의견과 환율 부담보다는 수익(미국시장)을 선택할 것이란 의견이 양립한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12월 1~5일) 서학개미들의 일평균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2억200만달러

(2969억원)로, 지난달 평균 2억9700만달러(4365억원) 대비 약 30% 줄어들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와 달리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보유한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짙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주식 보관액 감소를 손절(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파는 것)보다 환율 부담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의 미국채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지난 달에 이어 알파벳(3억4004만달러)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아이셰어즈 0~3개월 미국 국채 ETF’(8508만달러)가 2위에 올랐다. ‘아이셰어즈 0~3개월 미국 국채 ETF’는 대표적인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로, 고금리 환경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자 차익 실현을 노린 투자자들인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국내 시장을 확대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세제개편안 때문이다.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대상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된다.

다만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코스피의 경우 현행 0%에서 0.05%,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0%로 소폭 상향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기본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려는 유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배당은 가장 중요한 주주환원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통과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시장 비중 축소 흐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개미들이 원화 가치 약세가 뉴노멀(새 기준)이 된다고 인식한다면 달러화로 수익을 불리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 공격적 운용… ETF 선호 현상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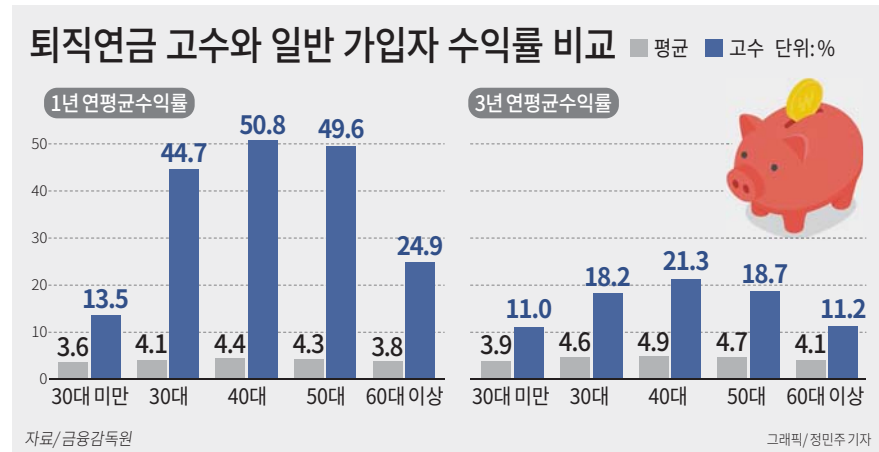
### 금감원 Q&A

#### ‘퇴직연금 고수’ 전략 분석

자산 평균 79.5% 실적배당상품 투자  
조산·방산·원자력 등 국내 시장 집중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이후, 수익률 상위 가입자들의 구체적인 운용 전략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의 투자 성과와 자산 운용 방식을 추가로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의 최근 1년 수익률은 평균 38.8%,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6.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수익률(1년 4.2%, 3년 4.6%)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금융권역별로는 증권사가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18.9%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은행 15.1%, 보험 13.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으로 짧은 30대 미만과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이후 자산 운용에 들어간 60대 이상은 비교적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의 공격적인 운용 전략입니다. 이들의 자산 가운데 평균 79.5%가 펀드·ETF·채권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돼 있었으며,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기성 자금도 8.6%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증권권역 고수들의 실적배당상품 비중은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유 상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 비중이 70.1%로 가장 높았으며, 혼합채권형이 9.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70%)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투자 지역별로는 국내 펀드 비중이 해외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수들은 조산·방산·원자력 등 테마형 상품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 집중 투자했으며, 이는 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대 업종과도 맞물린 선

택으로 해석됩니다.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 관련 상품 중심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형태에서는 ETF 선호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의 공통점은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적배당상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자산 운용 전략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처럼 능동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80% 이상이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해주는 디폴트옵션이나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조정해주는 TDF(타깃데이트펀드) 활용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1년간 TDF 수익률은 7.1%로,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3.4%)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허정윤 기자 zekova@



KB증권,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후원

KB증권은 지난 4일 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인 ‘브라보비버( Bravo Beaver)’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정대교 KB증권 인사지원부 부사장(왼쪽 두번째부터), 박미정 경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은주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 NH-아문디자산운용 올원더풀 전용상품 출시

NH-아문디자산운용은 NH금융의 시니어브랜드 NH올원더풀 출시에 기해 전용상품 ‘올원더풀 N2 글로벌자산배분EMP’ 펀드명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시니어투자자의 주요 니즈인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적화된 글로벌자산배분EMP 전략에 올원더풀 브랜드를 제일 처음 적용했다.

NH아문디 올원더풀 N2 글로벌자산배분EMP 펀드는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관련된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투자하는 ETF 자문 포트폴리오 펀드(EMP) 상품이다. NH투자증권 자산배분전략위원회에서 도출한 N2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운용해 NH금융그룹의 시너지를 집중시켰다.

중위험 중수익 자산배분 펀드 특성에 맞게 꾸준한 성과도 내고 있다. 신한펀드 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동 펀드(Ce클래스 기준)의 6개월, 1년, 3년 수익률은 각각 15.2%, 12.37%, 35.13%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 두나무, 26억 피해자산 동결… 추적·회수 속도낸다

### 업비트 해킹 사태

글로벌 협력 요청… “안전 생태계 조성”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6억원의 피해자산을 동결했다며, 신속한 추적과 회수를 위해 전 세계 디지털자산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업비트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 지갑에서 비정상적인 출금행위가 탐지되자 입출금을 차단하고 지갑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등 보

안을 강화했다. 또한 출금된 고객 자산 386억원을 업비트 자산으로 전액 보전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재 업비트는 자체 개발한 온체인 자동 추적 서비스(OTS)를 활용해 외부로 이동한 디지털자산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적인 자산이 동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비트 자산 추적팀은 OTS 기반의 24시간 정밀 모니터링을 가동해 출금된

디지털자산의 온체인 이동 경로와 관련 주소를 확보했다. 이후 업비트는 해당 주소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전세계 거래소 등에 제공해 해당 주소에서 피해자산이 입금될 시 동결하도록 요청을 한 상태다. 이 같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고 당일 출금 후 5시간 만에 23억원의 피해자산을 동결했고, 추가 공조를 통해 현재까지 총 26억원을 동결했다. 업비트는 동결 자산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비트는 디지털자산 회수율을 높이

기 위해 전 세계 디지털자산 거래소, 화이트 해커, 보안 전문가, 블록체인 분석가 등을 대상으로 회수 기여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피해자산의 추적 및 동결에 기여한 개인·단체에는 최종 회수된 자산의 10%를 회수 기여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 피해자산은 업비트 자산으로 이미 모두 총당했지만, 공격자에게 자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끈질기게 추적하고 동결하고 있다”며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